

충청북도 보은 정당연설회

아주 정말 용기 백배합니다. 기운이 납니다.

정말 참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민주당은 인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닥입니다. 민주당 어디 가서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게이트 바람에 정말 우리 민주당원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행히 엿그제 6월4일 저녁에 부산에서 그냥 우리 축구선수들이 두 골을 확 넣는 바람에 좀 시원해졌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이 어디 가서 참 말하기 어렵다.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민주당에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전에 우리 한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신문을 보면 한번도 한국에 희망이 있었던 때가 없었던 거 같아요. 언제나 정치는 엉망이고, 정치는 했다하면 우리 국민들 속만 썩이고, 이렇게 했던 거 같고, 경제도 언제나 살기 힘들고, 항상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 보면 지난 56년 동안 우

리 한국만큼 정치가 발전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나라들 중에서 지금 민주주의 우리 한국만큼 하는 나라가 또 몇 개가 더 있느냐. 이렇게 돌이켜 보면 200년, 300년 민주주의를 해온 나라말고는 그래도 한국이 민주주의가 얼추 1등입니다. 제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한국이 희망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죽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40년 지내왔는데 우리 경제가 100배 늘어나 버렸습니다. 100배 늘어 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살던 동네 한 40호 되는 동네 전체 전화기 한대가 없어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혈압이 오르면 밤 중에 자전거 타고, 제가 십리길을 달려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고, 집집마다가 아니라 식구마다 전부다 휴대폰이라는 거 있지요. 한 개씩 들고 다닙니다. 엄청 커 버렸습니다. 엄청 성장했습니다. 이게 너도 나도 성장한게 아니고, 우리 한국만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적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이 시대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지금은 크게 대우도 못 받고, 연금 제도가 없어서 손주들한테 품위 유지하기 위한 용돈도 마음대로 못 주지만 그래도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살기가 힘들더라도 자부심 하나는 크게 가지셔도 좋습니다.

세계 최고의 어르신들이 어찌 이리 됐을까.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는 엉망인데, 국민들이 훌륭하다. 국민들이 역량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푹푹해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이가 지금 30살인데, 제 아이가 유치원 갈 때부터 교육문제가 정말 큰 걱정이었습니다. 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그러고, 실제로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도 나오고, 과외비, 촌지 봉투, 이것 때문에 정말 전부다 고민했는데, 어쨌든 그럭저럭 아이를 키웠습니다. 제 아이는 보통 그럭저럭 그렇습니다만 그 친구들 보니까, 실력이 세계 일류입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일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은 못 말린다. 정치가 그렇게 국민들을 흔들어도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잘한다. 못 말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해방됐을 때, 우리 한국 먹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먹을 게 모자랐습니다. 먹을 게 좀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가 제일 큰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기본입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입니다. 민주주의, 이것도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의논을 맞추고, 이렇게 단합해야 하는데 이것도 갈라져 가지고 싸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열, 가난, 독재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난은 얼추 극복했고, 민주주의 얼추 다 돼가고 있지요. 게이트 몇 개 때문에 한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게이트 바람에 정말 국민들한테 체면 안 서고, 할 말도 없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고치겠습니다. 다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대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 아닙니까. 당원들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끼리 얘기로 변명 같지만 해먹는다 이점에 관한 한은 민주당이 한나라당하고 솜씨가 있게 비교가 됩니까. 한나라당은 옛날에 5공 때, 6공 때 보니까, 해먹는다 하면 몇 천억씩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마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그 쪽보다는 좀 낫다. 그러나 옛날 일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거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건데,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자꾸 속았으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나.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나라 살림을 맡겨야 이런 속 터지는 일이 안 생길까.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이회창 후보가 나서서 우리 한나라당이 자기들 한나라당이, 아니 이회창 후보 자신이 나서서 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막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패 정권을 심판하려면 적어도 우리 정부보다는 자신이 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부패하지 않아야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보니까요. 97년 한보청문회 한참하고, 그 다음에 김현철 씨 청문회 한참하고,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씨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정당집회에서 매질을 하고, 이렇게 차별화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선거 운동하면서, 대통령 선거 운동하면서 아래 사람들과 동생을 내 세워 가지고 국세청 시켜서 돈을 166억이나 거뒀습니다. 거뒀 가지고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정 부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났으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지요. 백배 사죄하고, 그 때부터 정치를 그만두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방탄국회,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돈 거두러 다닌 사람 구속시키지 마라고 국회 자꾸 열었던 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서상목 의원, 기억하시지요. 이것은 부정하고, 그 부정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은폐하는 소위 은폐, 조작 행위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스스로 부정하신 분이 누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비록 잘못이 좀 있지만 적어도 심판을 받으면 잘못이 없는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지, 이회창 후보나 한나라당한테는 절대로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들도 이번에 함께 심판해줘야 됩니다.

이제 손이 깨끗해야 깨끗한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회창 후보도 큰 소리할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친인척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친인척, 일일이 설명을 안들이겠습시다. 그 쪽도 수상해요. 뭔가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한테 나라 살림을 맡겨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각종 게이트 바람에 욕 먹고 있고, 한나라당은 보니까 거기도 전과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큰 전과가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딴 건 몰라도 딴 건 몰라도 저는 적어도 국세청 세금 거둬다가 정치자금 안 썼습니다. 안기부 예산 들어다가 정치자금 안 썼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27사단 훈련 엄청 고된데, 가서 일등병으로 뻑뻑 기다 왔습니다. 저는 세금 거둬다가 선거자금, 세금 거두러 다닌 동생도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동생이 없어요. 제가 막내니까요. 저도 집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내는 몇 백만 원짜리 핸드백 같은 거 몰라요. 그 다음 갈 것 없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이회창 후보가요 자꾸만 바꾸자 합니다. 뭐 바꾸자하냐고 그랬더니 정권 바꾸세요. 정권 바꾸면 자기가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얘긴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정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안 가지고 있다.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없으니까 바꾸면 더 부패한다.

그러면 안 바꾸면 어찌 되냐. 안 바꾸면 괜찮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선수 교체를 했어요. 12월달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출전 안하고, 저 노무현이가 출전합니다. 민주당 선수는 저 노무현입니다.

선수 바꿨으니까, 정권교체하지말고 정치교체 해야 합니다. 이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바꾸냐. 별거 있습니까. 비용을 많이 쓰는 정치, 돈 많이 쓰는 정치, 독선적인 정치, 권위주의 정치, 혼자서 다 해 먹는 정치 있잖습니까. 그래서 가신, 측근, 뭐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제왕적 후보, 말하자면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정치, 이거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역감정 부추겨서 지역주의 가지고 정권 잡겠다고 하는 분열의 정치, 이거 다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바꾸자는 건데, 이걸 놓고 흔히들 3김 청산, 3김 청산했지만 이미 3김 시대는 끝나 가는데, 이 정치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이거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양김을 모시고 있었지만 그건 안 배웠습니다. 보스 정치 안 배웠습니다. 제가 보스입니다.

한나라당에 서청원이라는 당대표가 있습니다. 서청원씨라는 당대표가 있는데, 서청원 대표는 이회창 후보 들러리예요. 들러리입니다. 여기 계신 한화갑 대표가 노무현이 들러리입니까. 한화갑 후보는 실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개혁했습니다. 진짜 개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 협력의 정치 이렇게 민주적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단지도 체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은 정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로 바꾸자 정치를 새롭게 바꾸면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도 다 고쳐지고, 없어집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정치 청산할 때, 이회창 후보도 한꺼번에 청산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하자. 그렇게 우리 민

주당이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모델 얘기했는데요. 절전형 냉장고 있지요. 전기가 작게 들어가는 냉장고. 자동차도 기름을 적게 먹는 빠르게 멀리 가는데 기름을 적게 먹는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자동차. 정치도 앞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 다녀보니까. 한때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조출하게 간소하게 다니느냐. 초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대신에요. 제가 하는 정치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와 몰려다니지 않아서도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제가 선거운동하는 방법도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봉투를 일체 돌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나라 세금을 안 거둬도 되지 않습니까. 안기부 예산 안 들어다 써도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비용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정치 시대를 바꾸어 버리면 이것이 새로운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신모델 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 당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향래 후보가 사람은 좋은데, 당 때문에 표가 다시 안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당이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우리 민주당이 극복했습니다. 이것을 세계 110개 나라가 IMF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중에서 아직 절반은 이 돈을 갚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한 안에 딱 한번만에 빚을 갚았는데, 이것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99년, 2000년, 2001년 이웃 나라 경제가 제자리 걸음 하거나 뒷걸음질 칠 때, 한국은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지금도 한국경제는 착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7%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A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등급 더 올라갈 것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 등급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막판에 정말 몇 가지 실책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다시 가져 주시고, 우리 한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역시 민주당 밖에 없다. 이렇게 딱 자부심 가지고 이번 선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이향래 후보도 꼭 당선시켜 주시고, 또 이제 김인수 후보, 이범노 후보, 이 분들 다 당선시켜 주십시오. 당선시켜 주시면 이제 연말에 가서 열심히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분들 당선시켜 주었던 그 힘을 몰아서 제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도가 지금까지 괘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점도 있지만 마음이 허전한데서 많이 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충청도가, 충청북도가 푸대접받았다는 느낌이 없도록 반드시 배려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도 절대로 홀대받지 않도록 모든 지역을 공평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도, 호남도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독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예산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흔히 얘기하는 어느 고등학교, 일류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제가 경상도 출신이지만 경상도 당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도 출신이지만 열심히 호남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떤 분들은 그럼 영남, 호남만 손잡고 충청도 따돌리자 이 말이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남이지만 영남 당 안 했을 뿐이지 또 어느 지역과 손잡고 그 지역끼리만 해 먹자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를 없애자. 어느 지역의 패권주의를 없애자. 이것이 제 정치철학이고, 소신입니다. 이거 한번 해 보려고, 제가 국회의원 몇 번 떨어지면서도 민

주당 그대로 하고, 민주당 하면서 부산 가서 출마하고 그랬잖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역주의로 정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체계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주의 시대를 청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좀 높게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지역주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증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결코 충청도를 소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동안의 소외를 다 갚아드리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청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 한가지만 당부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내 놓아도 떳떳하고 당당한 정치인들을 키워주십시오. 소위 지금은 개혁의 시대입니다. 한국의 살길은 개혁입니다. 한국은 개혁하면 살고, 개혁 못하면 주저앉습니다. 따라서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적인 정치인을 이 충청도에서 키워주십시오. 어디 내 놓아도 부끄럼 없는 정정당당한 정치인을 이 충청도에서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정치인이 나가서 경기도에서도 서울에서도 전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존경받아서 마침내 국가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청도 출신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충청도에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도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청도가 소외됐다 이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전국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적 세력과 정치적 인물들을 키워내는 일에 좀 더 힘을 모아 주시면 저희도 그냥 멀거니 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저희는 충청도 사람을 먼저 앞장세워서 국민들한테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후보님들 소개도 좀 드리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만해도 얘기를 너무 길게 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고, 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바빠서 함께 더 하지 못하고 떠나도 넉넉하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자신감 가지고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 민주당이 그 동안에도 그래도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훨씬 더 잘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이웃 분들 열심히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